■ 'TV끄고 살기' 완도군 다랑도 주민들의 특별한 실험

고통스런 금단현상 지나자 마을 공동체 문화 살아났다

"당신은 TV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문명의 이기'인 TV를 보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TV를 보지 않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CCTV까지 동원해 실험을 벌인 마을이 있다. 완도에서 두 번이나 배를 갈아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딴 섬인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다랑도. 이 곳 주민들은 EBS TV '리얼 실험 프로젝트 X' 제작진과 함께 지난 1월 24일부터 20일간 'TV 끄기' 실험을 했다.

EBS 3주간 TV끄기 실험

다랑도는 0.6㎢의 면적에 10가구 33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이들과 바깥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이자 위안거리는 TV 뿐이다.

'TV를 없애자'는 제작진의 제안에 주민들은 당연히 크게 반발했다.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TV 시청은 유일한 낙인데 그걸 없애자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렸죠."

다섯 차례에 걸친 주민 전체회의와 토론을 하면서 일부는 "절대 안된다"며 자리를 뛰쳐나가기도 했고, 자리를 주선한 마을 이장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최대문(56) 이장은 "다랑도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며 1주일간 꾸준히 주민들을 설득했고 겨우 승낙을 얻어내 TV를 껐다.

처음 나타난 반응은 의외였다. 주민들은 먼지가 수북이 쌓였던 CD를 꺼내 듣거나 바둑을 뒀다. 청년들은 책꽂이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단(禁斷)증세'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TV를 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했다. 드라마를 보기 위해 CCTV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 화면을 가린 후 TV를 보다가 적발됐고, 화를 내며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TV를 보기 위해 물건을 사러 나간다는 핑계로 배를 타고 읍으로 나가기도 했다.

첫 며칠 어른·아이 모두 고통

마땅히 놀 공간이 없는 아이들의 금단 현상은 더 심했다. 최승환(4)군은 하루 종일 TV앞에서 발버둥치고 통곡하며 떼를 썼다. 말리는 부모를 뿌리치고 TV를 켠 최군은 이를 막으려는 제작진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일가친척이 모두 모이는 설날에는 반발이 더욱 심해졌다. 타지에서 온 친척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배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버럭 화를 냈다.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자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다. 주민들은 하나 둘 마을 회관에 모이기 시작했고, 서로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나눠먹었다. 청년들은 부두와 냉동창고를 스스로 청소했고, 아이들은 책을 들었다. TV를 보는 대신 가족간 대화가 늘었고, 주민들은 속에 담아두던 가족사와 자신들의 얘기를 서로 나누며 의지하기 시작했다.

마을회관 모여 오손 도손 대화

하루종일 집에서 나오지 않던 노인들은 수 년간 경작하지 않던 밭을 갈기 시작했다. 3월이 돼야 땅을 고르지만 유일한 낙인 TV가 없어지자 스스로 일을 찾아 나선 것이다.

설날에는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여 생전 처음 잔치를 벌이고 가족 노래자랑도 가졌으며, 마을 어른들에게는 합동세배를 했다. TV를 끈 뒤 나타난 마을의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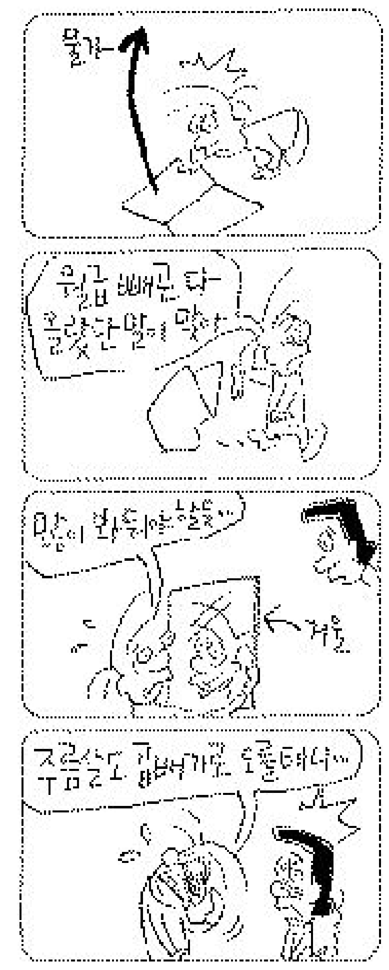
하지만 실험이 끝나자 주민들은 일제히 다시 TV를 켰다. 바깥세상 소식도 궁금하지만 날씨 정보가 가장 필요했다. 평생 배를 타야했고 태풍이 오면 피신을 가야하는 섬 사람들이라 날씨에 매우 민감했던 것이다.

최 이장은 "마을회관이 이렇게 떠들썩하고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적은 생전 처음이었다"며 "비록 TV를 다시 켰지만 덕분에 다랑도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후손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TV를 끄고 2주일이 지나자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매일 모여 음식을 나눠먹고 서로 감춰뒀던 속내까지 털어놓는 등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실험 20일 후 TV를 다시 켰지만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운참 〈7452〉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샤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광주 젠틀맨비뇨기과의원
www.urocare.co.kr 의학박사/전문의 : 조형희
발기불능수술 약물복용, 주사요법 안되시는 분
상담전화 (062)233-5119

산불조심

건조한 날씨… 광주·전남 포사격장 등 5곳 화재

광주·전남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신촌마을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400㎡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20분께도 광주시 북구 월출동 밭에서 김모(여·76)씨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작물을 태우다 인근 야산에 불이 옮겨붙어 임야 400㎡가 불에 탔으며, 오후 2시 10분께에는 보성군 복내면에서 마을 주민이 밭에서 작물을 태우다 인근 야산에 불이 옮겨붙어 임야 0.3ha가 불에 탔다.

광주시 광산구 동산동 평동 공용화기 사격장에서도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불이 나 잡풀 0.5ha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헬기와 소방차 9대와 소방관, 군 장병 등 50여명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육군 기계화학교에서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포탄이 잘못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또 오전 11시 30분께에는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이모(여·76)의 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이씨가 얼굴과 다리, 손바닥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영광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봄맞이 영농 준비

7일 오후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에서 봄철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이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규산질 비료를 뿌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국민 참여재판 온정개입 차단

대법원은 7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지나치게 배심원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두 차례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아이를 안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법률지식이 아닌 일반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관대한 양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석부장들은 특히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결정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률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의해서만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말·휴일 봄기운

주말과 휴일인 8일과 9일 광주·전남지역은 봄 기운을 완연히 느낄 수 있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8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0도~14도로 예상된다. 휴일인 9일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낮 최고기온이 11도~15도까지 올라가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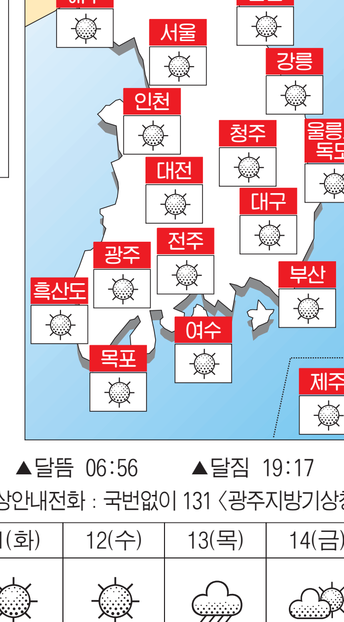
봄 햇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3월 8일 (음 2월 1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맑음	-1~13℃
목 포	맑음	0~11℃
여 수	맑음	2~13℃
완 도	맑음	0~12℃
구 례	맑음	-4~14℃
해 남	맑음	-5~12℃
장 흥	맑음	-5~13℃
고 흥	맑음	-3~14℃
순 천	맑음	-4~14℃
영 광	맑음	-4~10℃
진 도	맑음	-3~13℃
전 주	맑음	-2~13℃
남 원	맑음	-5~13℃
흑산도	맑음	4~9℃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02:27 14:52 썰물 07:47 20:10
여수 밀물 09:43 21:57 썰물 03:18 15:44

▲해뜸 06:53 ▲해짐 18:34 ▲달뜸 06:56 ▲달짐 19:1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날 씨						
최저/최고	2/14	2/15	2/15	3/17	3/13	4/12

화약공장 직원, 화약 빼돌려 방화 시도

주차시비 차량 12차례 파손
한화 여수공장 관리 허술

한화그룹 여수공장에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화약을 몰래 빼돌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의 차량에 방화를 시도하다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0시 30분께 여수시 덕충동 T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김모(33)씨의 승용차에 화약을 이용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최근 12차례에 걸쳐 이웃의 차량을 부순 임모(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여수 T아파트 상가 주인들이 서점을 운영하는 자신의 어머니와 주차 문제로 자주 시비를 벌이자 자신이 일하는 한화그룹 여수 공장에서 지난해 10월께 몰래 가지고 나온 화약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한화석유화학(주)의 한 직원이 3억원 상당의 자재용 철근을 몰래 빼돌려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한화그룹 여수 공장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청원경찰이 입장료 횡령

담양 죽녹원

청원경찰이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인 죽녹원의 입장료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죽녹원 서무·회계업무를 맡았던 청원경찰 최모(42)씨가 거액의 입장료를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죽녹원 입장료 가운데 5천400여만원을 군의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군은 보고있다. 최씨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대나무박물관과 가사문학관 등 입장료를 받는 다른 관광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직장서 배변 중 급사 업무상 재해"

대법원 3부 판결

일터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로 급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발살바효과는 운동 등을 하면서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에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현상을 말한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무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로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송씨는 2003년 7월8일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려다 가슴이 답답해 공사현장 소장실로 돌아와 화장실 좌변기에서 변을 본 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숨졌다.

대법원은 "숨진 장소가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범위 내에 있는 곳이었고, 사망시점 또한 현장소장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된 행위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출한 딸 찾는 부모 협박 돈 갈취

광산경찰 20대 2명 검거

가출한 딸을 찾는 부모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하려던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조모(24·나주시 금계동)씨는 "가출한 딸 김모(20)씨를 찾아주면 사례금 준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들었다. 폭력 등 전과 16범인 조씨는 친구들을 통해 나주시에 있던 김씨의 행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의 친구들이 김씨와 아는 사이였던 것이다.

조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씨의 부모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선배 황모(26·나주시 금계동)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조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김씨의 어머니(43)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행방을 찾았으니 6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납치당한 것으로 오해한 어머니는 약속장소를 파악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S나이트클럽 앞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도주로까지 확보하고 있던 광산경찰 강력팀 형사 20명에게 붙잡혔다.

조씨 등 두 명은 경찰조사에서 "김씨 행방을 너무 쉽게 알아내서 사례금을 받아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1일 가출한 김씨를 나주 D대학 앞 PC방에서 발견해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조씨 등 두 명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원정 해산물 절도단 주민들에 덜미

쌍나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마을 공동어장에서 해산물을 훔친 남녀 혼성 3인조 절도단이 주민들의 추격 끝에 덜미.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박모(46·경남 마산시)씨 등 3명은 지난 5일 밤 9시 30분께 여수시 남면 안도 주민들의 공동어장에서 전복 15㎏을 훔쳤다는 것.

○…낚시꾼의 신고로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주민들이 도착하자 배에 있던 박씨 등 두 명은 도주하려다 스크루에 이물질이 걸려 붙잡혔으며,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물 속에 있던 윤모(여·47)씨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지만 주민 20여 명의 1시간에 걸친 끈질긴 추격 끝에 모두 검거.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경남 마산에서 2t짜리 고속 선박을 타고 여수까지 원정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여수=박양규기자 ykpark@